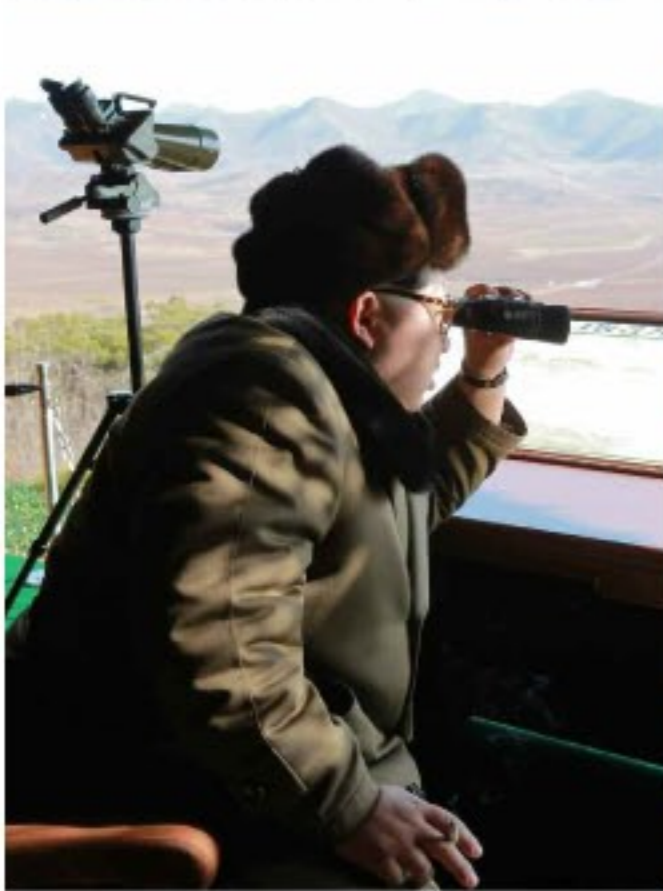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탱크병경기대회-2016》을 보시였다



### 3 면 에 서 계 속

경기대회에서는 조선인민군 제108기계화보병사단이 1등, 제3군단이 2등, 제105탱크사단이 3등을 쟁취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경기대회가 끝난 다음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인민군대에서 싸움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는데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오늘 진행된 경기대회를 통하여 지휘관들이 탱크병싸움준비를 어떤 관점과 필장에서 보고 대하며 훈련장도를 얼마나 높이고있는가를 직관적으로 보여주었다고 하시면서 탱크병들의 전투적사기와 혼

면에 대한 욕망, 탱크운전수들의 능력을 높여주는데서 아주 좋은 훈련방법인 이런 경기대회를 앞으로도 자주 조직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탱크병들은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파죽지세로 달려나가 무쇠발톱으로 적진을 짓밟아버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러자면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원수들을 무자비하게 잘아누히며 제일먼저 서울에 돌입하여 괴뢰중앙청에 공화국기발을 꽂은 근위 서울유격수제105탱크사단 312호 영웅탱크병들의 싸움본래와 투쟁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휘관들이 탱크병싸움준비에 힘을 넣고 우리 나

라의 자연지리적조건에 맞는 탱크전법을 부단히 연구완성할데 대한 문제, 산악과 진펄, 강하천을 단숨에 극복하기 위한 훈련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 탱크운전기술과 사격술을 부단히 높이는것과 함께 승조협동동작을 완성할데 대한 문제, 부대들의 훈련장을 실전을 가상하여 더 잘 꾸릴데 대한 문제, 만능승조운동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문제 등 탱크병싸움준비 완성에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늘 강조하는것이지만 싸움준비에서 태일이만 없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에서는 모든 장비들이 자나깨나 오직 원수적면의 의지로만 실장을 불태우며 그 어느 훈련도 소홀히 하지 말고 병종,

전용병훈련을 비롯한 싸움준비완성에 비약의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국통일을 위한 천금같은 기회는 우리가 먼저 선제공격이 낫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에서 백두산훈련열풍을 더욱 세지게 일으켜 모든 군인들을 실전능력을 갖춘 일당백의 싸움군으로 키우고 고도의 격투상태를 유지하여 원수들이 감히 신성한우리 조국강토에 선불질을 하려고 날뛰면 무자비하게 격멸소탕하여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의 용감한 탱크병들이 조국과 인민이 마련해준 무쇠철갑으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보위하고 뜻깊은 올해를 전

투력강화와 싸움준비완성으로 빛나게 장식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정력적인 지도밑에 진행된 《조선인민군 탱크병경기대회-2016》은 불패의 지략과 일당백의 용맹을 안겨주는 위대한 최고사령관을 모신 우리 인민군대는 백번 싸우면 백번 다 이기는 무적강군으로 그 이름 빛내일 것이며 미제와 그에 추종하는 열거지들이 우리 삶의 귀중한 터전을 노리고 움푹하기만 한다면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우리의 무자비하고 단호한 보복타격으로 모조리 정벌할것임을 다시금 힘있게 과시하였다.

본사정치정보단

